

제주도 패총 출토 어패류와 어로구 小考

양나래 (목포대학교대학원)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

1. 머리말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 끝에서 남으로 약 9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最大)의 섬이다. 동-서로 긴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섬은 그 가운데에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자리하고 있어 해발에 따라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식생의 수직분포를 보여준다. 규모는 동서의 길이가 약 74km, 면적은 1,849km² 정도이며 제주도를 기점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동해안(황해난류)과 일본(쓰시마해류)으로 갈라져 올라간다.

제주도에는 한반도 최고(最古)의 유적인 고산리 유적을 비롯하여 청동기에서 초기철기, 철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조사결과, 적어도 신석기 초기부터 한반도와 동일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섬이라는 특성상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양상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 나름의 발전방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업의 경우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면을 둘러싼 바다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생업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동물유체나 식물유체 등의 자연유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유물이 가장 잘 남아 있는 환경은 저습지나 알칼리성토양, 패총 등이 있는데, 그 중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패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많은 패총유적이 발굴조사 되었으나 한국 본토에 비해 연구 성과가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선행하여 간략하게 제주도 패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제주도 패총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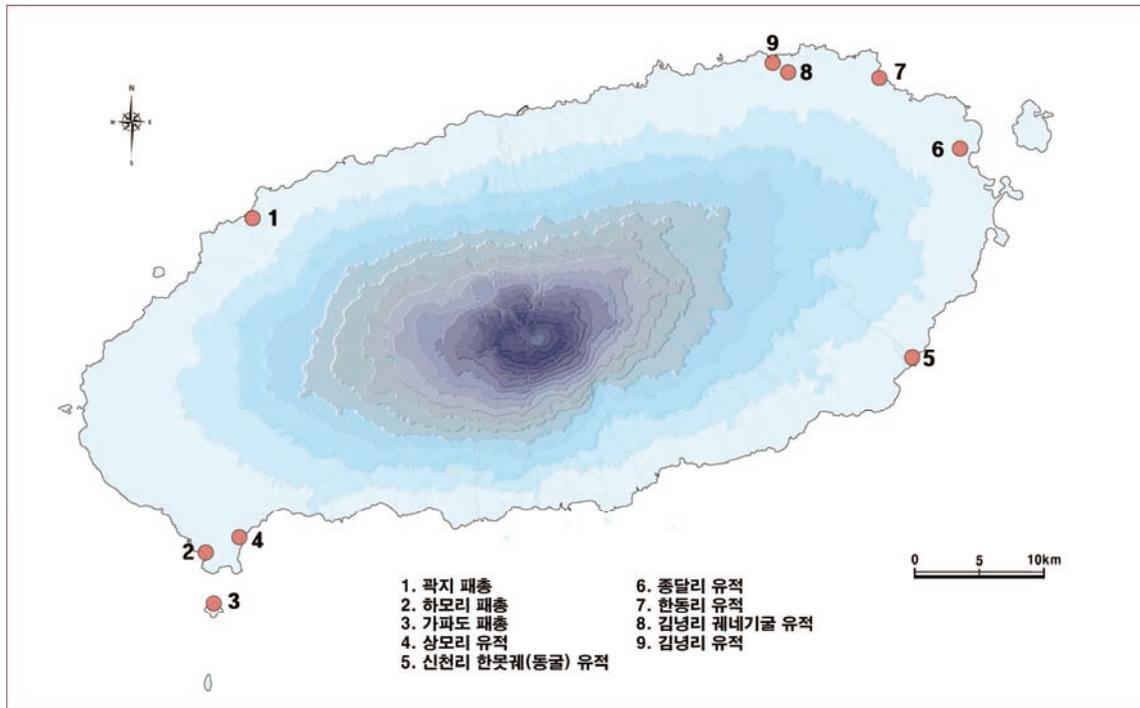
제주도 내 패총은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 반하여 그리 많지 않다. 한반도 본토의 패총 대부분이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제주도 패총은 제주해안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구층 하부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¹⁾.

1) 하모리유적이나 한동리유적, 상모리유적의 경우 모두 깊은 사구층의 하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표 1. 제주도 패총 출토 자연유물 보고 현황

유적명	발굴연도	발굴기관	블록샘플링	자연유물분석		
				패류	어류	포유류
상모리유적	1988	제주대학교박물관	×	×(사진)	×	×(사진)
곽지패총	1985	제주대학교박물관	×	×	×	○
	1989					
	1992					
	1995					
	2012	제주고고학연구소	×	×(사진)	×(사진)	×(사진)
종달리유적	1991	제주대학교박물관	×	×(사진)	×	○
	2000	"	×	○	○	○
	2002	국립제주박물관	×	×	×	○
	2004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	×	×(사진)
김녕괘네기굴 유적	1991	제주자연사박물관	×	○	×	○
김녕리유적 (수습)	2001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사진)	×(사진)	×
한뫼괘유적	2001	"	×	○	×	×
가파도시굴	2004	"	×	○	○	○
하모리유적	2005	"	○	○	○	○

* 사진은 보고서상에 사진만 실린 경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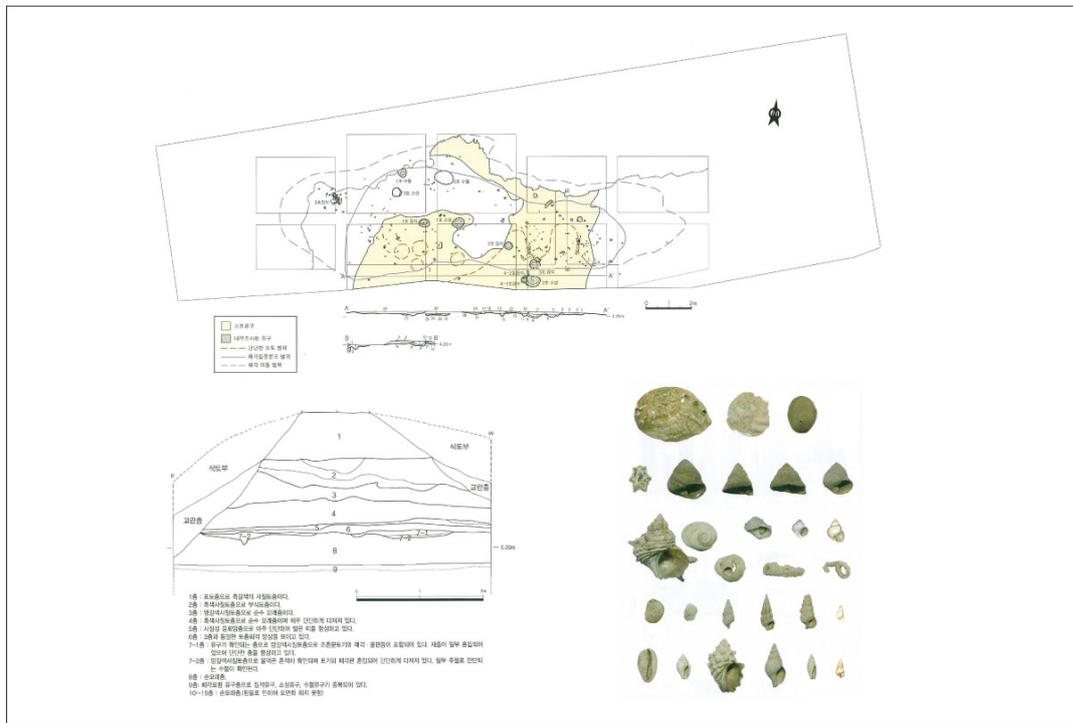
도면 1. 제주도 패총 유적 분포도(분석대상)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패총은 9개소에 이른다(표1 참조). 그 중 대규모 패총인 괏지패총과 종달리유적의 경우에는 각각 5차례와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들 유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석기시대

(1) 하모리 패총²⁾

2005년에서 2006년에 걸쳐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적은 3개 구역으로 나뉘며, 패총이 확인된 구역은 하모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인 2구역이다. 패각층은 1cm 내외로 매우 얇은 편이고 대부분 눈알고동과 개울타리고동류로 이루어져 있다. 패각층의 내부에서는 집석노지 6기, 소성유구 3기, 수혈유구 2기 등 총 1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소성유구 내부에서는 고동류와 성계 등이 탄화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출토유물로는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점렬문 계토기, 이중구연토기, 각종 골각기, 패제 장신구가 있으며 제주에서 처음으로 결합식조침이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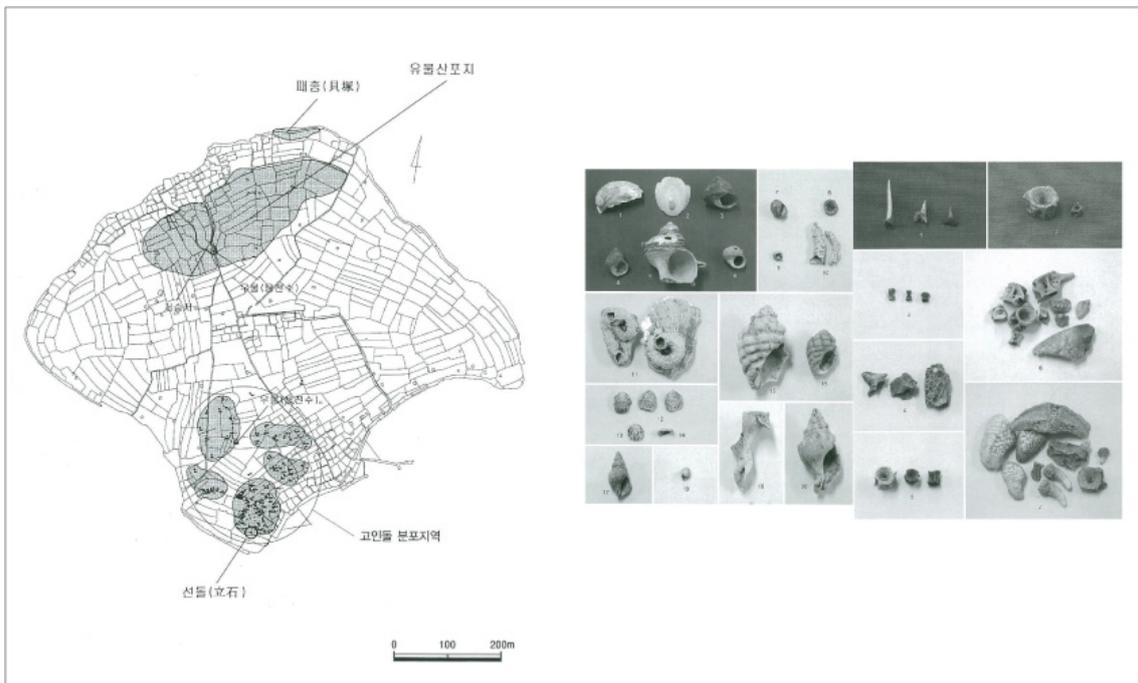


도면 2. 하모리패총 평면도 및 토층단면, 출토 패류

2)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 16책, 2006, 『하모~산이수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 하모리유적』.

(2) 가파도 패총³⁾

가파도는 제주도의 서남부 해상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제주 본섬과는 약 2.3km 떨어져 있다. 패총은 가파도의 북쪽, 제주 본섬의 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규모는 길이 50m, 폭 20m 정도이며 해안쪽은 도로개설 등으로 단면이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층위는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에 해당하는 것이 패각층이다. 남아 있는 패각층의 두께는 20~30cm 정도이며 패각의 구성은 소라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전복과 고등류가 보이며 어류유체, 멧돼지, 사슴 등의 육상포유류를 비롯하여 고래와 강치유체도 일부 출토되었다.



도면 3. 가파도패총 위치도 및 출토 자연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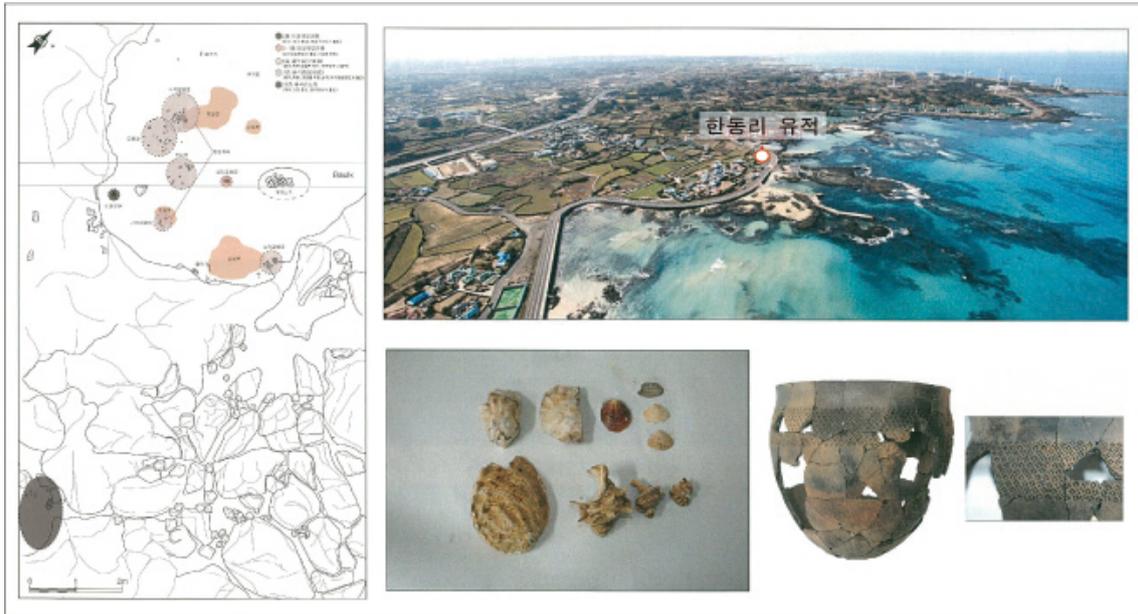
(3) 한동리 유적⁴⁾

한동리 유적은 단독주택 신축 공사전에 실시된 입회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으로 한동리 유물산포지의 해안사구층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은 3m 내외이다. 유물과 패각층은 유적 서북편의 U자형 함몰지대와 유적 서남편의 암반지대에서 확인되었다. 함몰부에서는 2개의 패각층이 신석기 후.만기의 유물과 같이 출토되었으며 암반지대에서는 신석기 조.전기의 용기문토기와 함께 소량의 패각이 출토되었다. 시기와 위치를 달리하는 이 두 지점의 패각층을 구성하고 있는 패각의 종류는 상이하다. 신석기 조.전기의 패총에서는 소라와 전복이 주종을

3)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 15책, 2006, 『가파도 추정고인돌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4) 제주고고학연구소간략보고서 2012-2, 2012,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36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이루고 있으며 신석기 후·만기의 패총에서는 대복 등의 부족강이 주로 출토되었다.



도면 4. 한동리 유적 유구배치도 및 위치, 출토 유물

2) 청동기시대

(1) 상모리 유적⁵⁾

1988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송악산과 산방산 사이의 1.5km에 달하는 해안사구에 위치한 이 유적은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혼암리식 토기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상모리 유적은 총 4개의 지점으로 나뉘며 패총은 유적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D지점에 해당한다. 패각층의 두께는 1m가 채 되지 않지만 길이는 20~30m 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패각층은 3층과 4층에 해당하며 4층에서는 다량의 전복이 집중 출토되었다.

(2) 한뫼곶(동굴)유적⁶⁾

제주도의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동굴유적이다. 용암동굴의 천정부가 내려 앉으면서 형성되었으며 대지상에 타원형의 함몰부와 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이 점유되었던 시기는 크게 신석기와 청동기, 탐라시대(초기철기~철기)의 세시기로 구분된

5) 제주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6집, 1990, 『상모리유적』.

6) 제주문화예술회관 발굴조사보고 4책, 2006, 『신천리 한뫼곶(동굴)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성산~표선간 국도 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가파도패총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 즉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이들 토기가 본 유적에서 확인된 총 4개의 층위 중 정확히 몇층상에서 출토되었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현장에서 채질되어 운반된 이 유적의 패류를 동정하는 과정에서 신석기시대 토기와 패천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석기시대부터 패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 조사자는 유물과 유구의 출토 양상으로 볼 때 동굴의 초입부를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주생활이 이루어졌고 청동기시대에는 주변 야외에 근거지를 두고 부수적으로 동굴의 초입부와 전정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패총은 동굴의 초입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패각층 내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각목토기와 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패총의 주를 이루는 패각은 밤고둥이나 눈알고둥 등의 고둥류이며, 전복이나 소라의 출토량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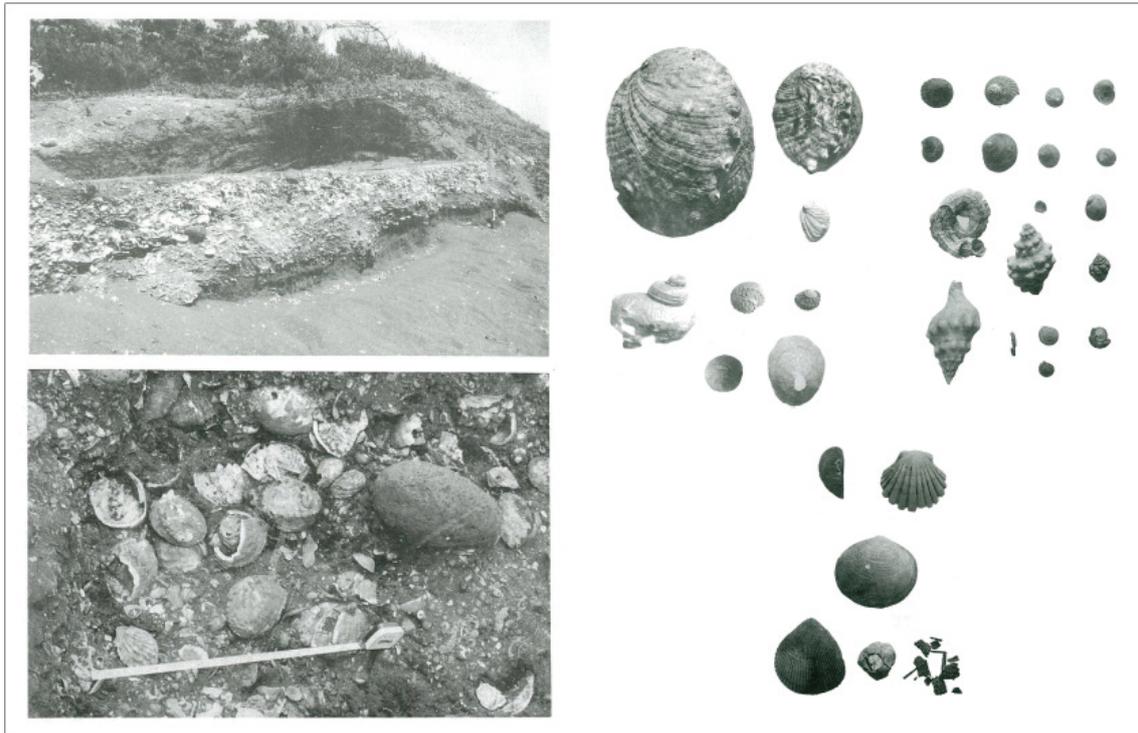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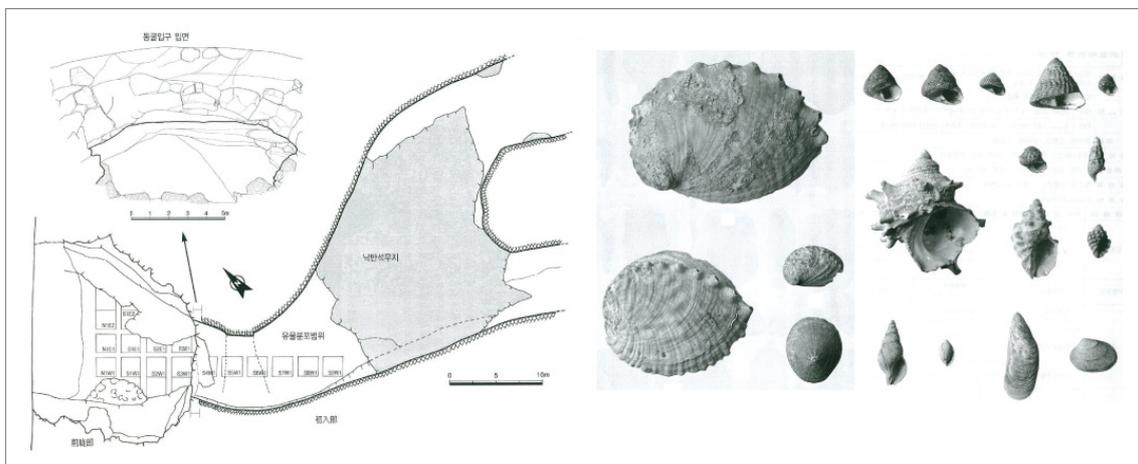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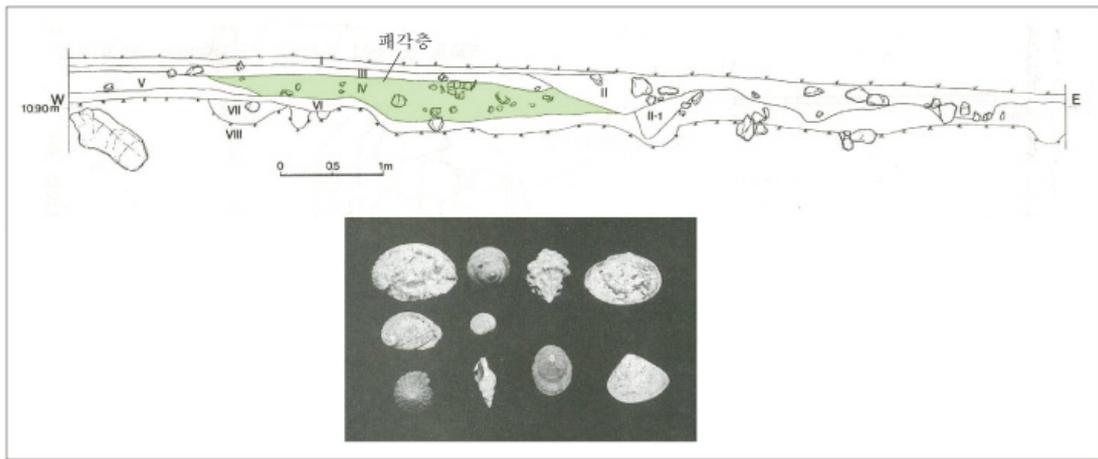
사진 1. 상모리 유적 패총 전경 및 출토 자연유물 사진



도면 5. 한뫼계 유적 평면도 및 출토 자연유물

(3) 김녕리유적(925번지)⁷⁾

김녕리 925번지에 위치한 절개면에 토기와 석기, 패각류가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훼손됨에 따라 실시한 토층 단면에 대한 수습조사이다. 토층은 총 8개 층이 확인되었으며 패각층은 4층에 해당한다. 이 층의 깊이는 20~35cm 정도이며 구순각목토기 1개체분이 확인되었다. 패각류의 종류는 전복과 소라, 고둥 등이 있으며 대복 등의 부족강도 확인되었다.



도면 6. 김녕리 유적 토층 단면 및 출토 자연유물

3) 탐라시대(초기철기~철기시대)

(1) 광지패총⁸⁾

광지패총은 제주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범위가 10,000평 이상인 대규모 패총으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패총에 한하여)에 걸쳐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가 유물 수습조사 식으로 이루어져 보고서에는 출토된 인공유물의 보고와 육산 포유류의 동정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2012년도에 이루어진 광금초등학교 살리기 다세대주택 건립부지내 시굴조사에서는 일부 패각과 어류유체가 확인·수습되었으며 동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패총을 이루는 주된 패종은 소라와 전복, 고둥류의 암초성 패류이며 대복과 바지락 같은 부족강도 확인되고 있다. 어류로는 능성어와 상어가 확인되었다.

7)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유적 발굴보고 2001-1, 2001, 『김녕리유적 수습조사 보고서』.

8)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20집, 1997, 『제주광지패총』.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06, 『애월~신창간 국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광지리·금성리)』.

제주고고학연구소 간략보고서 2012-6, 2012, 『제주 광지리 광금초등학교 살리기 다세대주택 건립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도면 7. 괏지패층 위치도 및 괏금초 시굴조사 출토 자연유물

(2) 종달리패층⁹⁾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한 패층이다. 지미봉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이 패층은 괏지패층과 마찬가지로 매우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며 퇴적층의 깊이가 2m나 되는 곳도 있는 대규모의 패층이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신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의 문화층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패각층의 주된 시기는 탐라시대전기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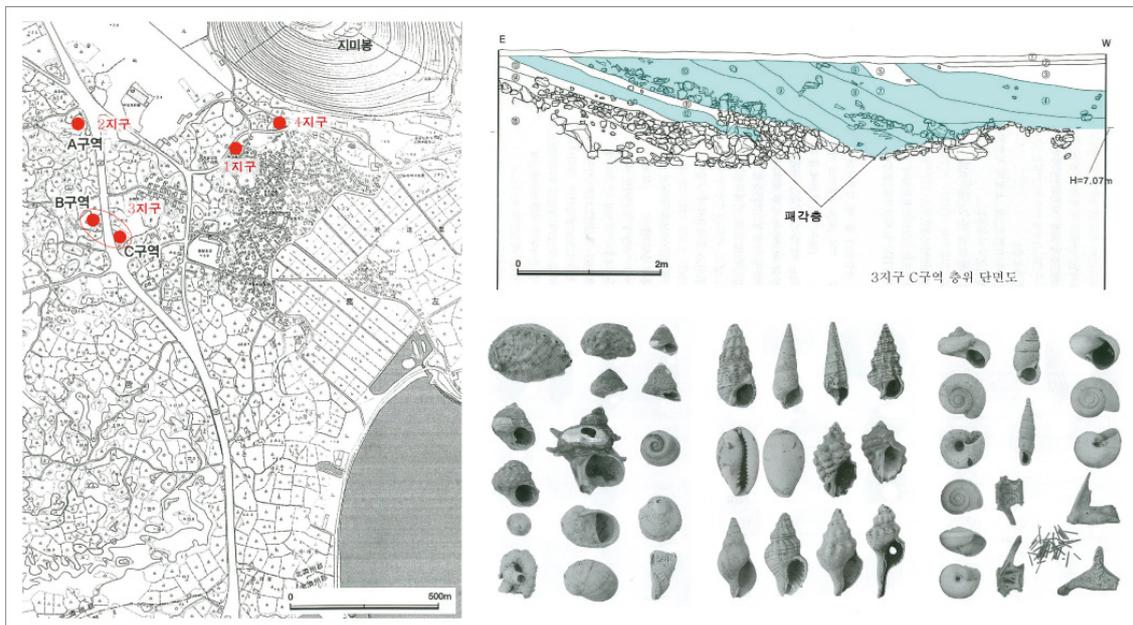
종달리 패층은 패층 부분에 한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출토 패종이나 어류의 보고가 있는 보고서는 2000년도에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했던 종달리 2.3지구에 관한 보고서가 유일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종달리패층은 90% 이상이 대복과 빛조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라나 고둥, 전복 등 암초성 패류는 소수에 불과하다. 어류유체로는 감성돔과 흑돔이 있다.

(3) 김녕리 궀내기동굴 유적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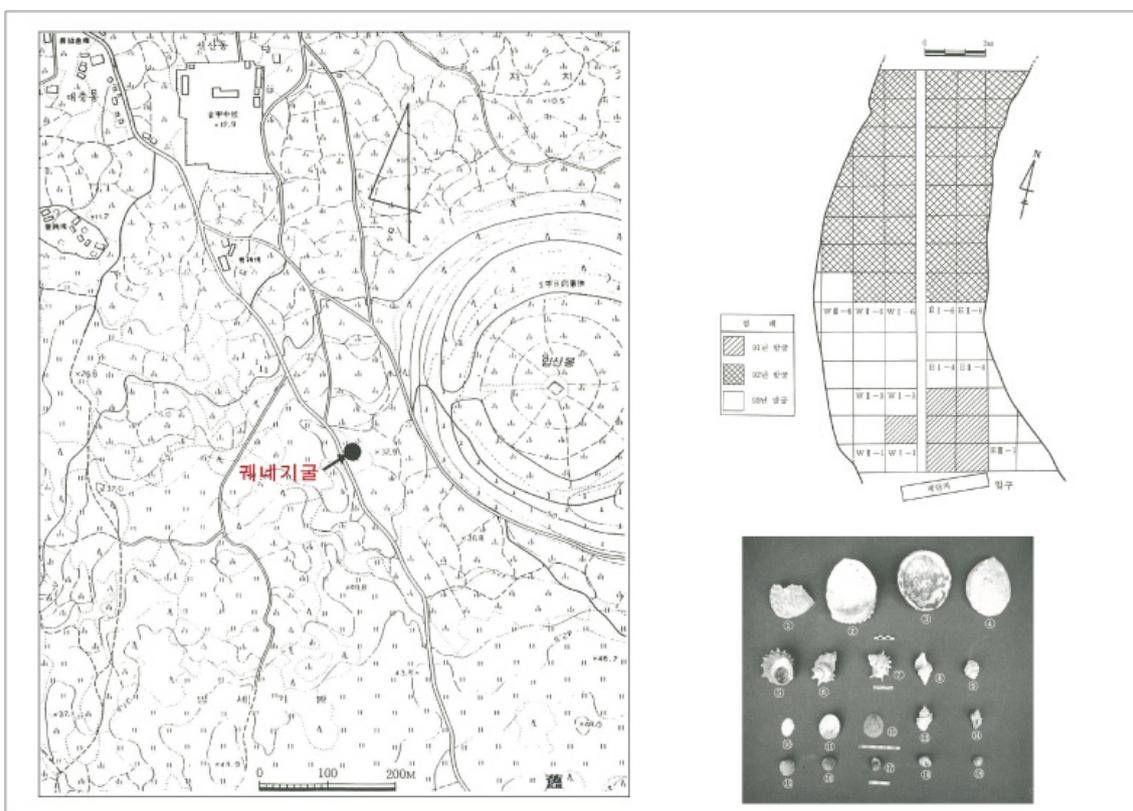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동굴은 해안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며 해발은 약 17~20m 정도이다. 동굴 형성 과정은 한뫓궀유적과 동일하다.

동굴내의 층위는 크게 3개층으로 나뉘며, 패층은 2층에 해당한다. 패각은 주로 소라나 전복, 고둥류가 출토되었고 부족강으로는 반지락이 확인되었다.

9)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21집, 1997, 『제주종달리패층』 .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06, 『함덕~성산간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달리 유적(2.3지구)』 .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2책, 2006, 『제주종달리유적 I』 .
 1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녕리 궀내기동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도면 8. 종달리 유적 지구별 위치도 및 2·3지구 층위, 출토자연유물



도면 9. 웨네기굴 위치 및 평면도, 출토 자연유물

3. 패총 출토 패류와 어류유체의 분석

앞에서 간략하게 제주도 소재의 패총유적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각 유적에서 출토되고 동정된 패류와 어류유체를 분석하여 시기별, 유적별 패총의 특징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1) 패류

패총 내의 자연유물의 경우 블록샘플링 등을 통한 정량 분석이 이루어져야 다양한 각도에서 패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주도에 정량 분석이 이루어진 유적은 하모리 유적이 유일하다. 가파도 패총의 경우에도 1×1m 트렌치의 모든 패각을 현장에서 건식체질한 후 분석하여 어느정도 자료는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상모리유적, 한뫓곶유적, 괏지패총, 종달리유적의, 궤내기굴유적에서는 출토종의 종류만 명시되어 있고 김녕리 유적에서는 본문내용에 구체적인 패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진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한동리 유적은 모든 패각을 수거하였으나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 출토된 패류의 증명만을 언급하겠다.

신석기 패총은 제주 서남부의 하모리 유적과 가파도 패총, 제주 동북부의 한동리 유적이 있다. 이 중 하모리 유적은 제주도에 유일하게 블록샘플링이 실시된 유적이다. 하지만 패각층의 두께가 1cm 내외로 매우 얇아 패총이 형성되었을 당시부터 교란이 심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샘플링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¹¹⁾. 이 유적에서는 패류 40종, 육산패 5종, 어류 8종, 포유류 3종, 조류 등이 확인되었다. 패류는 눈알고둥(37.7%)과 개울타리고둥(31.3%) 등 조간대의 암초에 붙어사는 종이 주로 출토되었고 소라나 전복과 같이 잠수업으로 잡을 수 있는 종은 극히 드물게 확인되었다. 부족강으로는 대복과 가무락조개, 개량조개 등이 소량 출토되었으며 군부나 성게 등도 다수 확인되었다.

하모리 유적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가파도 패총은 하모리에서는 극히 드물게 확인되었던 소라와 두드럭고둥, 개울타리고둥 등 복족류가 전체 패류의 98.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종은 소라(66.5%)이다. 이는 공반 출토되는 전복(조간대 하부 수심 10~50m)과 갈색띠매물고둥(조간대 하부 수심 50m), 매끈이고둥(조간대~암초 수심 20m)과 같은 암초성패류와 함께 당시 잠수업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라의 크기는 6~8cm 대의 개체가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종은 두드럭고둥과 개울타리고둥, 명주고둥 등의 고둥류이다. 이 외에 두툼빛조개와 밤색무늬조개와 같은 부족강도 극소량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암초성인 다른 패류들과는 달리 모래사장에 서식하는 종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모리나 하모리, 사계리와의 교류 혹은 장·단기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패각층을 각 그리드별로 샘플링하였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표 2. 하모리유적 Block sampling별 출토 패류 일람표

	NO.1			NO.2			NO.3			NO.4			NO.5			합계	%
	좌각 / 우각	최소 개체 수	%														
전복과										1	0.7				1	0.1	
큰배말										1	0.7				1	0.1	
배무래기							1	1							1	0.1	
명주고둥		24	14.2		6	4.0		9	8.9		18	13.4		40	23.7	97	13.5
개울타리고둥		46	27.2		29	19.6		34	33.7		47	35.0		70	41.4	226	31.3
소라		4	2.4		3	2.0		4	3.9		2	1.5		2	1.2	15	2.1
눈알고둥		55	32.5		97	65.5		42	41.6		53	39.6		39	23.1	286	39.7
복족강 좁쌀무늬총알고둥					1	0.7								1	0.6	2	0.3
기생고깔고둥														2	1.2	2	0.3
덩굴뱀고둥														2	1.2	2	0.3
농갈색띠줄고둥								1	1					1	0.6	2	0.3
땡가리		1	0.6													1	0.1
깜장짜부락고둥		1	0.6					1	1							2	0.3
매끈이짜부락고둥		2	1.2		1	0.7										3	0.4
두드럭고둥		2	1.2													2	0.3
두툼회오리고둥					1	0.7										1	0.1
동정불가		33	19.5		10	6.8		8	7.9		12	9.1		11	6.5	74	10.3
소계		168	99.4		148	100		100	99		134	99.8		168	99.5	718	99.6
복족강 주름방사록조개		1	0.6													1	0.1
가무락조개														1	0.6	1	0.1
개량조개								1	1							1	0.1
소계		1	0.6					1	1					1	0.6	3	0.4
합계		169	100		148	100		101	100		134	99.8		166	100	721	100

한동리유적에서는 용기문이 출토되는 신석기 초기·전기 패층과 점열문토기와 이중 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신석기 후·만기 패층이 확인되며 출토되는 패류의 양상도 차이를 보인다. 용기문문화층에서는 주로 소라와 전복과 같은 암초성 패류가 주를 이루며 점열문토기 문화층에서는 모래밭에 사는 대복과 반지락 등 부족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기별로 선호되었던 종이 달랐음을 보여준다¹²⁾.

시기와 입지에 따라 패층을 이루는 주된 종이 달라지는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청동기 시대에는 대부분 명주고둥이나 밤고둥, 눈알고둥과 같은 고둥류와 전복, 소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뫼곶유적에서는 16종의 복족강과 2종의 부족강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반지락을 제외한 17종은 모두 조간대의 바위나 암초에 서식하는 종이다. 이들 중 전체 패류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종은 밤고둥이나 눈알고둥, 명주고둥 등의 고둥류이며 전복의 경우에는 깊은 바다에 사는 대형 말전복의 출토량이 많아 당시 잠수업이 활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모리 유적에서는 복족류 19종과 부족강 4종을 비롯하여 성계와 큰빨강따개비 등이 출토되었다. 또 김녕리유적에서는 사진을 통해 볼 때 전복, 오분자기, 두드럭고

12) 한동리 유적에서는 무시설식노지(피열흔만 있는)가 수개 확인되었을 뿐 뚜렷한 정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유적의 성격은 이동식 캠프일 가능성이 높아 각 시기별로 유적을 점유했던 계절이나 시간대가 달랐을 수도 있다.

둥, 큰배말, 팽이고동, 밤고동과 같은 복족류와 대복과 같은 부족류가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상모리패총과 김녕리유적은 보고서상에 패총을 이루는 주종에 대한 언급 없이 사진이나 일부 명칭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조사 중의 사진 등을 보았을 때 부족류가 차지하는 양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뫼곶유적과는 달리 모래사장이 근처에 위치한 이들 유적에서 부족류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청동기에서 초기철기로 넘어오면 패총은 마을유적을 중심으로 거대화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광지패총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고동류와 전복, 소라 등의 복족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¹³⁾, 종달리유적에서는 대복과 빛조개와 같은 부족류가 패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⁴⁾. 이 외에도 가무락조개나 반지락, 긴뿔고동, 대추고동, 짜부락고동 등 모래에서 서식하는 종이 검출되고 있어 주변 모래사장에서의 패류채취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암초성 패류의 경우에는 전복과 소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수가 대복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녕리 궤내기동굴 유적에서는 광지패총과 같이 고동류와 전복, 소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족류는 반지락과 백합, 홍합 등이 확인되었다.

13) 광지패총은 4~7지구의 발굴조사 결과를 한 보고서에 실으면서 책 말미에 유적에서 출토된 포유류유체에 대한 보고를 하였을 뿐 패류나 어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 광지에서 조사된 유적인 '제주 광지리 광금초등학교살리기 다세대주택 건립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만을 인용한다.

14) 종달리유적의 경우에도 패총에 대한 총 세 번의 조사에서 패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했던 2·3지구에 대한 보고서 밖에 없다.

표 3. 가파도 출토 패류 일람표

종 명		좌각/우각	최소 개체수	%	합계	%
복 족 강	전복과		18	2.9	18	2.8
	큰배말		21	3.3	21	3.3
	명주고둥		20	3.2	20	3.1
	개울타리고둥		36	5.7	36	5.6
	소라(뚜껑포함)		426	67.5	426	66.5
	눈알고둥(뚜껑포함)		3	0.4	3	0.5
	갈고둥		2	0.3	2	0.3
	뱀고둥과		1	0.2	1	0.2
	덩굴뱀고둥		1	0.2	1	0.2
	곧은목벌레고둥		2	0.3	2	0.3
	큰뱀고둥		3	0.4	3	0.5
	기생고깔고둥		14	2.2	14	2.2
	털모자고둥		2	0.3	2	0.3
	개오지과		1	0.2	1	0.2
	두드럭고둥		42	6.7	42	6.5
	대수리		13	2.1	13	2.0
	갈색띠매물고둥		1	0.2	1	0.2
	타래고둥		3	0.4	3	0.5
	매끈이고둥		2	0.3	2	0.3
	동정불가		19	3.0	19	2.9
입술대고둥과		1	0.2	1	0.2	
소계		631	100	631	98.6	
부 족 강	밤색무늬조개과	3	3	33.3	3	0.4
	홍합	2 / 0	2	22.2	2	0.3
	비단가리비	1 / 0	1	11.1	1	0.2
	보라굴아재비	0 / 1	1	11.1	1	0.2
	보라원돌이굴아재비	1 / 0	1	11.1	1	0.2
	두툼빛조개	1 / 1	1	11.1	1	0.2
소계		9	99.9	9	1.4	
합계		640	100	640	100	

2) 어류

어류유체가 확인된 유적은 하모리유적과 가파도유적, 광지리 광금초등학교살리기 다세대주택 건립부지내 유적, 종달리유적이 있다¹⁵⁾.

하모리유적에서는 8종의 어류가 확인되었다.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은 능성어와 감성돔으로 최소개체수는 각각 5개체와 4개체이다. 그 다음은 참돔과 흑돔이다. 감성돔을 제외한 이들 어류는 잔존 유체의 크기로 보아 비교적 큰 개체들로, 참돔은 전장 80cm급까지 잡혔던 것으로 보인다.

15) 나머지 유적의 경우 Sampling이나 체질이 되지 않아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확인 못한 건지 알 수 없다.

표 4. 하모리 유적 출토 어류 일람표

부위 종명	頭蓋骨		前上顎骨		主上顎骨		齒骨		方骨		舌顎骨		前鰓蓋骨		主鰓蓋骨		上鎖骨		인후골			脊椎	합계	%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M	R							
상어류																						3	3	4.1		
멸치																							2	2	2.7	
능성어			3	3	1	2	5	1		3	1		2	2	1								2	26	35.6	
보리멸																							1	1	1.4	
감성돔			4		3					1	1												10	19	26.0	
참돔	1	1	2	1	1	2																		8	11	
돌돔								1																1	1.4	
흑돔																		1	1	1				3	4.1	
미상			2			1																		5	10	13.7
합계	1	1	11	4	5	5	5	2		4	2		2	2	1			1	1	6			20	73	100	

가파도유적에서도 대부분 하모리에서 확인되는 어종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대부분의 유체는 머리부분과 꼬리부분에 해당하며 중간 부위의 척추가 드문 것이 특징적이다. 각각의 최소개체수는 상어, 능성어, 감성돔, 참돔이 각각 1개체이며 돌돔 2개체, 흑돔 6개체이다. 크기는 대부분 50~60cm급에 해당하며 흑돔의 경우에는 70~90cm급도 확인되었다.

곽지리에서는 능성어의 전상악골 1점과 미상의 척추가 출토되었는데, 척추의 경우 사진상 상어인 것으로 보인다. 종달리유적에서는 참돔의 전상악골과 척추, 흑돔의 인후골이 확인되었다. 크기는 참돔 30cm, 흑돔은 미터급으로 보여진다. 또한 직접 실견하지는 않았으나 조사사진 중에 상어의 척추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어류유체는 능성어와 감성돔, 흑돔, 참돔, 상어 등으로 시기를 막론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심 20~60m의 암초지대에 서식하는 암초성 어종으로 지금도 사시사철 포획이 가능하다. 대부분 주낙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다.

표 5. 가파도 패총 출토 어류 일람표

부위 종명	前上 顎骨		主上 顎骨		齒骨		齒		角骨		方骨		前鰓 蓋骨		인후골			脊椎	합계	%	
	L	R	L	R	L	R	L	R	L	R	L	R	L	M	R						
상어류							3											5	8	9.0	
능성어																		2	2	2.2	
보리멸																		3	3	3.4	
감성동	1								1		1								3	3.4	
참돔																		3	3	3.4	
돌돔	1				2	1												10	14	15.7	
흑돔	4	1			1													2	12	25.8	
미상	1			1	1													28	33	37.1	
합계	7	2		1	4	1	3			1		1	1	1	1	5	4	6	53	89	100

4. 제주도 패총유적 출토 어로구

제주도내 패총에서 출토된 어로구는 빗창¹⁶⁾과 결합식조침이다. 어로도구가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은 신석기시대 하모리유적과 북촌리유적, 청동기시대 상모리유적, 탐라시대 괄지패총 유적이다.

1) 하모리유적 출토 골제 빗창과 결합식조침¹⁷⁾

전술한 바와 같이 하모리패총은 신석기시대 후기(BC. 2700~2000)에 속하는 점렬문

16) 빗창의 정의는 제주에서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철기시대 유적지인 전라남도 해남군 군곡리 패총에서 발굴된 유물 중 빗창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형태와 거의 다름이 없다. 이로 미루어 빗창이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녀들이 빗창을 휴대하는 방법을 보면 반드시 등허리에 비스듬히 빗겨서 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빗겨 휴대하는 창’이라는 뜻으로 빗창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제작은 불가능하며 대개 맞추거나 구입한다. 예전에는 해녀들이 대장간에 가서 자기에게 알맞은 크기로 맞추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일장에 여러 가지 크기의 기성품이 나와 있다. 빗창의 형태는 변함이 없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크기가 다양해졌다. 해녀들은 기본 크기의 빗창은 등허리에 차고 작은 크기의 빗창은 망시리 상부에 꽂는다. 빗창은 쇠로 만든다. 길이는 28cm, 높이는 2.5cm 정도이다. 나이프 형태로 길쭉하면서도 도톰하다. 날은 둥글고 무딘 편이며 끝은 구부러져 있다. 빗창은 전복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바위에서 떼어내기에 알맞게 고안되어 있다. 끝에는 고무줄 끈을 길게 꿰어서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빗창은 쇠를 여러 번에 걸쳐 단련시킨 것일수록 부러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으며 바닷물에도 쉬이 삭지 않는다. 사용할 때는 끝 부분에 달려 있는 고무줄 끈을 손목에 두 번 감아서 잡기 때문에 물 속에서 놓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빗창은 개날[戔日]을 택하여 맞추러 간다. 개날은 해녀들에게는 행운의 날로 여겨지며 빗창을 비롯한 해녀 용품을 맞추거나 구입할 때도 되도록 개날에 한다. 보관은 항상 벽에 걸린 망시리에 꽂아 두거나 걸어 두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빗창을 넘어 가거나 밟으면 재수가 없다고 여기며 상대방을 깔보는 행위로 받아들인다. 반면 빗창에 발강게 녹이 슬면 재수가 좋을 징조로 받아들인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서귀포시), 김순이 집필 내용 수록].

17)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하모~산이수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 하모리 유적』,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 16책.

계토기와 신석기만기(BC. 2000~1500)에 해당하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이들 토기와 함께 각종 골각기와 패제 장신구 등이 출토된다. 골각기 중 빗창이 모두 12점, 결합식조침(結合式釣針) 2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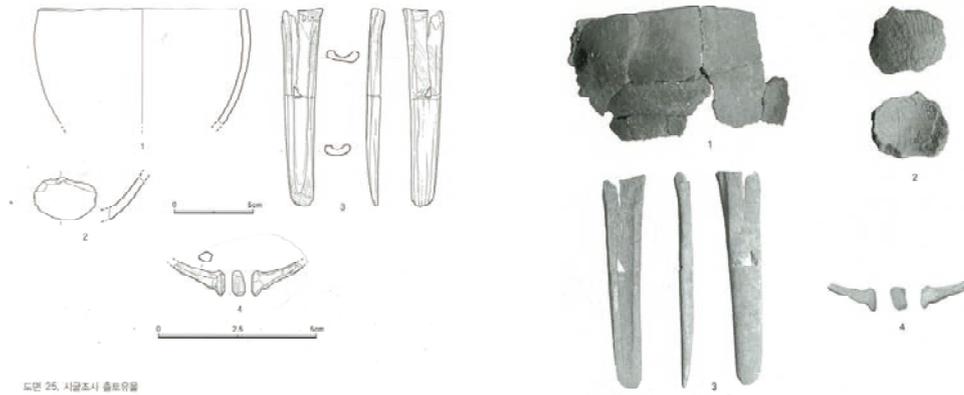


그림 10. 하모리 시굴조사 출토 신석기토기, 골제 빗창, 결합식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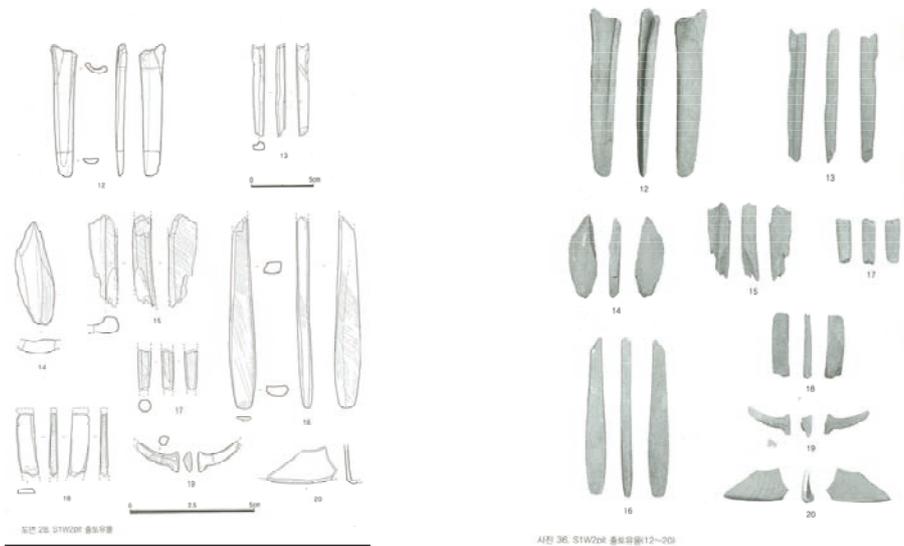


그림 11. 하모리 발굴조사 S1W2pit 출토 골제 빗창, 결합식조침

2)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 출토 골제 빗창¹⁸⁾

18) 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北村里遺蹟－ 신석기시대 바위그늘집자리』, 濟州大學校博物館, 調查報告 第4輯.. 이 동굴 내부 서쪽편에서 다량의 전복 무더기가 포함된 패층이 확인되었다.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는 1986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발굴 결과 5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각 층위별로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까지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제1층은 표토층이고, 제2층과 제3층에서는 적갈색 경질토기가 출토되었고, 제4층에서는 공렬 토기와 골아가리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제5층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맨 아래층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만기 점렬문토기,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숫돌·공이·갈판·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사슴의 다리뼈를 세로로 가공하여 만든 골제 빗창(길이 15cm 내외, 너비 3cm 내외) 13점이 출토되었다.

조사 당시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의 최하층에서 나온 화석화된 전복패를 시료로 하여 측정된 방사성 탄소 연대가 2920 ± 25 BP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분석 시료에 의하면 3240 ± 50 BP가 측정되어 그 상한연대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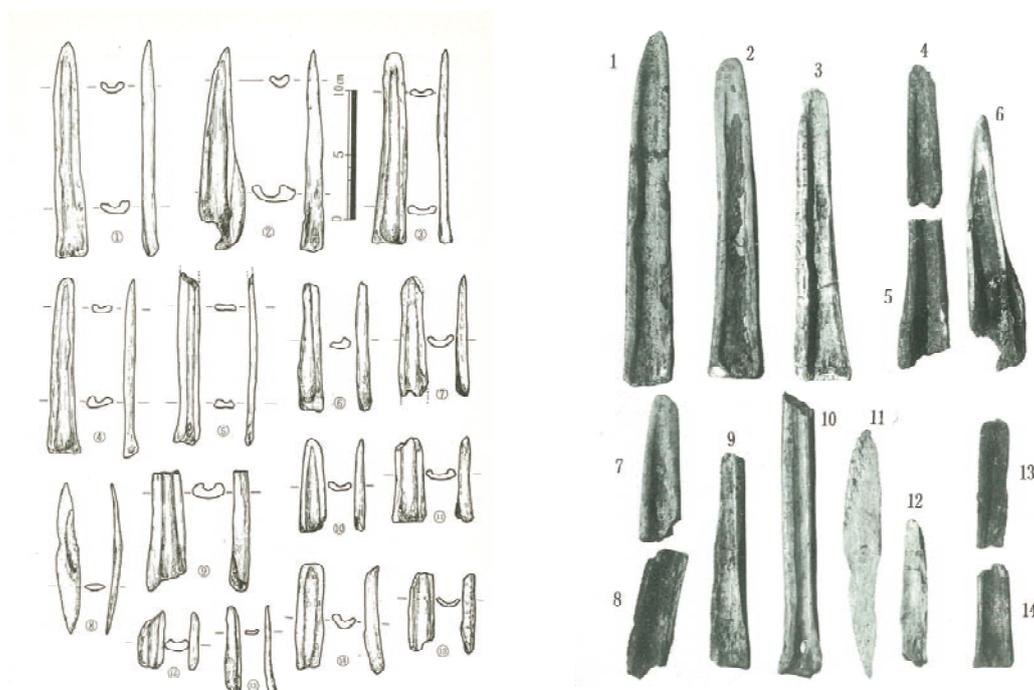


그림 12.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 출토 골제 빗창류

3) 상모리패총 출토 골제 빗창¹⁹⁾

앞서도 언급했지만 상모리패총은 1988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상모리 유적은 총 4개의 지점을 조사하였고 골제 빗창이 확인된 구역은 C·D지점에 해당한다. 패각층의 두께는 1m가 채 되지 않지만 길이는 20~30m 정도

19) 제주대학교박물관, 1990, 『상모리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6집.

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패각층은 3층과 4층에 해당하며 4층에서는 다량의 전복이 집중 출토되었다.

상모리 패층에서 확인되는 골제 빗창은 사슴의 다리뼈를 세로로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길이 10cm 내외, 폭은 너비 2cm 내외로 3점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작살의 봉부로 보이는 마제 어로구와 3cm 내외의 뼈바늘, 조개팔찌가 출토되었다. 특히 안산 암제 그물추 2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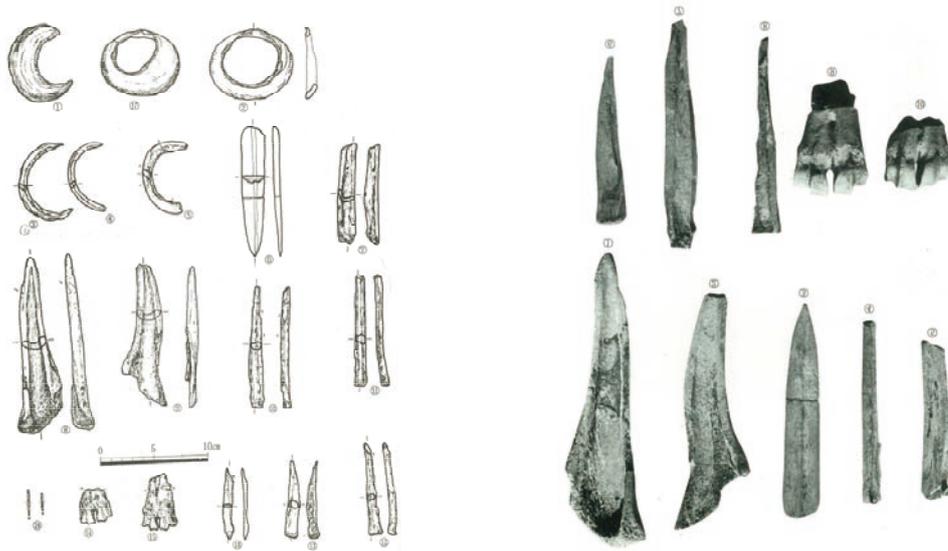


그림 13. 상모리패층[C·D지구] 출토 골제 빗창류, 조개팔찌, 뼈바늘

4) 광지패층 출토 빗창²⁰⁾

광지패층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패층조사를 진행하였다. 1984년에 표본 조사한 3지구 출토 유물 중에서 골제 빗창으로 추정되는 골각기가 몇 점 확인된다.

20) 濟州大學校博物館, 1985, 『郭支貝塚』.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1집, p.73의 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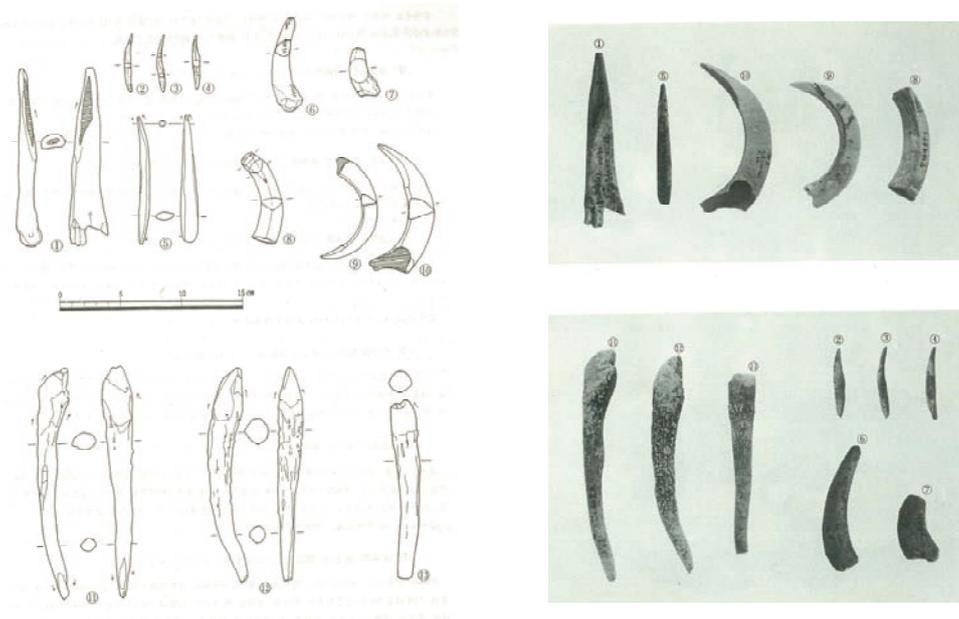


그림 14. 괘지패총 출토 골제 빗창류

5. 맺음말

제주도는 연중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외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이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종달리유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패총에서 각종 고등류와 소라, 전복 등의 암초성 패류가 주를 이루 있고, 어류의 경우에도 참돔을 비롯하여 감성돔, 흑돔, 능성어 등의 외양성 어종이 주로 출토되고 있어 외양성 패총²¹⁾의 성격을 띠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외양성패총은 주로 신석기시대에 속하는데, 이는 쿠로시아 난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²²⁾. 한반도 남해안에서는 신석기 이후에 외양성패총이 나타나지 않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철기시대까지 폭 넓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가 쿠로시오의 강항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다만, 쿠로시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달리유적에서 부족류로 이루어진 두꺼운 순패층이 확인된 점이나 한동리유적의 문화층에 따른 출토종의 변화 등은 차후에 그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규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더불어 패총에서 출토된 골각기 중 어로구인 빗창과 결합식조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제주도 골제 빗창은 신석기 후기와 만기에 성행했음을 알 수 있었고 청동기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탐라시대에는 철기의 보급으로 인해 골제

21) 한국의 패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외양성 성질을 가진 패류, 해수류, 어류유체가 출토되는 외양성패총과 패류는 내만성이지만 외양성의 해수류와 어류유체가 출토되는 외양성+내만성 패총, 그리고 내만성의 패류, 어류 등이 출토되는 내만성 패총이 그것이다. 김건수, 1999, 『한국 원사·고대의 어로문화』.

22) 김건수, 2011, 「쿠로시오(黑潮)와 남해안지방 신석기문화」, 『한국신석기연구 제 21호』, 한국신석기학회.

빗창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간략하게 제주도 패총 출토 패류와 어류, 어로도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제주도가 섬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패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자연유물에 대한 발굴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유적이 드물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차후에 이들 유적이나 다른 패총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풍족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가능되길 기대한다.

표 6. 유적별 복족류 출토 현황표

	하모리	가파도	한동리	상모리	한뫼귀	김녕리	곽지	종달리	괘내기
전복	○	○	○			○	◎	○	○
시볼트전복	○				○				○
말전복				○	○				○
마대오분자기									○
오분자기				○	○	○	○	○	○
큰배말	○	○		○	○	○	○		○
두드럭배말									○
배무래기	○								○
테두리고등	○								
명주고등	◎	○		○	◎	○	◎	○	○
밤고등				○	◎				○
구멍밤고등				○					○
애기밤고등				○	○			○	
바다방석고등				○			○		
팽이고등	○				○			○	○
보말고등	○					○	◎		
개올타리고등	◎	○		○	○		○	○	
소라	○	◎	○	○	○		◎	○	○
눈알고등	◎	○		○	◎			○	○
갈고등		○						○	
좁쌀무늬총알고등	○								
둥근좁기수우렁	○								
뱀고등		○							
큰뱀고등	○	○		○					
덩굴뱀고등	○	○							
벌레뱀고등								○	
긴목벌레고등	○								
곧은목벌레고등		○							
매부리고등								○	
침배고등	○								
기생고깔고등	○	○		○					
털모자고등		○							
농갈색띠줄고등	○								
갯고등	○							○	
댕가리	○				○			○	
짜부락고등								○	
깜장짜부락고등	○						○	○	
매끈이짜부락고등	○								
노랑개오지	○	○						○	
별개오지	○								
두드럭고등	○	○		○	○		○	○	○
대수리		○		○	○			○	○
갈색띠매물고등		○							
무늬무럭	○								
타래고등	○	○			○			○	
쇠털깍질고등								○	
매끈이고등		○		○				○	○
크림색띠고등	○								
노랑띠대추귀고등					○				
두툼회오리고등	○								
긴빨고등								○	
대추고등								○	
구슬우렁이				○					

박물관과 무형유산

표 7. 유적별 부족류 및 굴족강, 다판강, 갑각강, 성게강 출토 현황표

	하모리	가파도	한동리	상모리	한뫼곶	김녕리	곽지	종달리	퀘내기
돌조개	○								
밤색무늬조개	○	○							
투박조개				○					
홍합	○	○							
격판담치				○	○	○			○
비단가리비		○							
국자가리비				○				○	
참굴								○	
태생굴	○								
보라굴아재비		○							
보라원돌이굴아재비		○							
소쿠리조개				○					
주름방사류조개	○								
반지락					○		○	○	○
백합									○
대복	○		○			○	○	◎	
가무락조개	○							○	
비단조개							○		
개량조개	○								
빛조개								◎	
두툼빛조개	○	○							
대양조개	○								
여덟빨조개	○								
군부	○	○					○	○	
따개비	○	○							
분홍따개비				○					
성게	○	○		○			○	○	

표 8. 유적별 어류 출토 현황표

	하모리	가파도	한동리	상모리	한뫼곶	김녕리	곽지	종달리	퀘내기
상어	○	○					○		
멸치	○								
능성어	◎	○					○		
보리멸	○	○							
감성돔	◎	○						○	
참돔	○	○							
돌돔	○	◎							
흑돔	○	◎						○	
미상	○	○							

참고문헌

- 김건수,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 김건수, 2011, 「쿠로시오(黑潮)와 남해안지방 신석기문화」, 『한국신석기연구 제 21호』, 한국신석기학회.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0, 『상모리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6집.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5, 『郭支貝塚』,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1집.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北村里遺蹟- 신석기시대 바위그늘집자리』, 濟州大學校博物館, 調查報 제2집.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제주곽지패총』,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20집.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제주종달리패총』,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제21집.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6, 『애월~신창간 국도 1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곽지리·금성리)』,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06-1.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6, 『함덕~성산간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달리 유적(2.3지구)』,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06-2.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6, 『하모~산이수동간 군도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 하모리유적』,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 16책.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6, 『가파도 추정고인돌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 15책.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6, 「신천리 한뫼궤(동굴)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성산~표선간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발굴조사보고 4책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1, 『김녕리유적 수습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유적 발굴보고 2001-1.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36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간략보고서 2012-2.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 『제주 곽지리 광금초등학교 살리기 다세대주택 건립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 간략보고서 2012-6.
- 국립제주박물관, 2006, 『제주종달리유적 I』, 국립제주박물관 학술총서 제2책.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녕리 궤내기동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